

동향과 분석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이종규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양문수

2015년 북한식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2015년 북한 곡물생산 동향과 향후 전망

김영훈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I. 머리말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북중무역이 확실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 원유 수입 통계에 대한 논란으로 출처마다 다른 방향성을 보였던 2014년의 추세와 달리 2015년 북중무역이 감소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¹⁾ 따라서 작년 북한 대외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²⁾를 기록해 오던 북중무역 증가세가 확실하게 꺾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들어서자마자 핵실험이라는 부정적인 외생 변수(外生變數)까지 더해진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 중인데 만약 과거와 비교하여 더 강력한 형태의 제재가 이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감소세를 보였던 북한 대외무역의 낙폭이 올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와 같은 외화 확보의 차질은 북한이 항상 그래왔듯이 소득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흑자, 비공식부문으로부터의 자금 흡수 등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고착되어 있는 경제구조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를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제재라는 외생 변수가 더해질 2016년의 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2013년에는 원유 수입 통계가 기록된 상태이고 2014년에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2014년 통계가 2013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2014년과 2015년은 똑같이 대중 원유 수입 통계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북중무역은 확실하게 감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의 연간 대외무역액(KOTRA 기준): 2010년(41.7억달러, 22.2% 증가), 2011년(63.6억달러, 52.3% 증가), 2012년(68.1억달러, 7.1% 증가), 2013년(73.4억달러, 7.8% 증가), 2014년(76.1억달러, 3.6% 증가)

II.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동향(1~11월)

2015년 11월까지 북중무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14.8%).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리 이상으로 감소했으며,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상반기까지는 약 12.8% 감소했는데, 하반기 들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4년 같은 기간 동안 원유 수입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약 1.9%가 감소했던 셈이고, 원유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약 5.9% 증가³⁾한 셈인데, 이와 비교해 본다면 2015년의 북중무역 추세는 확실하게 꺾였다고 볼 수 있다.⁴⁾ 무엇보다도 2014년과 2015년 모두 대중 원유 수입이 통계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같은 조건)에서 양국 간 무역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2015년의 변화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2000년대에 북중무역이 이만큼 감소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2000~14년 동안 연평균 22.4% 증가하던 북중무역은 2009년(-38.6%)과 2014년(-2.8%), 딱 두 번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석 편(2014), 남진욱(20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데이터에 대한 보정 작업을 거칠 경우 2009년 북중무역은 2008년에 비해 약 4.2% 감소세를 보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4년의 경우 북중무역액이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원유 수입까지 포함시키면 오히려 무역액이 증가(약 4.9%)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두 자리 수 이상의 북중무역액 감소폭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합 계	무역 적자
2014년 전체	2,841 (-2.4)	3,523 (-3.0)	6,364 (-2.8)	681
2014년 1~11월	2,598 (-1.0)	3,162 (-2.6)	5,760 (-1.9%)	564
2015년 1~11월	2,279 (-12.3)	2,630 (-16.8)	4,909 (-14.8%)	351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1. 13).

3) 공식 통계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만약 원유 수입이 예년과 같이 이루어졌다면 2015년 1~11월까지 대략 4.6억달러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여 단순 계산한다면 2015년 북중무역액은 2014년 대비 약 5.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아직 2015년 12월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추세가 12월 한 달 통계로 갑자기 반전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12.3% 감소했다. 2014년 같은 기간 동안 1.0% 정도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된 원인은 그동안 북한의 대중 수출을 이끌어 왔던 지하자원 수출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석탄은 이 기간 동안 6.3%, 철광석은 68.5%나 감소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 중에서 두 지하자원이 기여한 비율은 65.8%에 달해 전체 대중 수출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철광석은 2005년 이후 북한의 두 번째 수출상품으로 자리 잡아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HS 4단위 기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력 수출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제품(HS 61, HS 62)이나 수산물(HS 03) 수출이 지하자원 수출의 감소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다. 의류제품⁵⁾ 수출의 경우 2014년에는 28.4%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6.5%만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⁶⁾ 또한 수산물 수출의 경우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는데, 2014년은 전년에 비해 26.2%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2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으나,金正은의 수산물 수출금지 명령, 북한의 국내적인 수요 증가, 군대에 대한 공급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⁸⁾

〈표 2〉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1~11월)		2015년(1~11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2701	석탄	1,032	-18.2	967	-6.3
2	6201	남성 코트	154	27.9	163	6.0
3	6203	남성 재킷, 슈트	139	27.1	138	-1.1
4	6202	여성 코트	132	23.0	121	-8.6
5	6204	여성 재킷, 슈트	93	71.9	82	-11.6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총계			2,598	-1.0	2,279	-12.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1. 13).

5) 의류제품을 HS 4단위 기준으로 나누면 남성/여성 코트, 남성/여성 재킷 등 모두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2단위 기준으로 구분했으며, 편물제 의류(HS 61)와 편물제 이외 의류(HS 62)를 합해서 전체 의류제품의 수출로 봤다.
6) 북한의 대중 의류제품 수출액(각년도 1~11월): 5.4억달러(2013년), 6.9억달러(2014년), 7.4억달러(2015년)
7)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각년도 1~11월): 1.06억달러(2013년), 1.34억달러(2014년), 0.99억달러(2015년)
8) 『Daily NK』, 「金正은 수산물 수출 금지 명령...「군인들 먹여라」」, 2015. 10. 28.

그러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먼저 석탄 수출의 경우 2014년 1~11월 동안 약 18.2% 감소했는데, 2015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약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 기준). 특히 석탄 수출액이 정점에 달해 이를 통해 외화를 상당량 확보하던 2013년과 비교한다면 23.3%나 감소한 셈이고, 액수로 치면 약 2.9억달러가 줄어든 셈이다.⁹⁾ 흥미로운 점은 석탄의 경우 그동안 수출하던 지역의 범위¹⁰⁾를 넓혀 가면서 물량을 늘렸으나, 가격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전체 수출액 자체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수출물량을 힘겹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에 쥐어지는 경화는 예년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철광석 수출의 부진은 조금 더 심각해 보인다. 수출금액은 물론 수출물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의 수출량이 266만톤이었는데, 2015년 141만톤을 기록하면서 약 47%나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철광석 공급 확대와 중국 내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는데, 허진석(2015, p.6)은 “철광석은 Big 3사(Vale, Rio Tinto, BHPB)의 광산 신증설에 의한 Market Share 확대 및 Cost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무역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입 감소세 전환으로 가격 약세가 초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가격과 물량 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단가 및 국제시세(월평균)

(단위: 달러/톤)

		무연탄		철광석	
		북한 수출단가	국제시세	북한 수출단가	국제시세
2013년	상반기	90.02	95.88	100.52	136.87
	하반기	76.62	85.33	95.71	133.85
2014년	상반기	76.91	80.22	89.46	111.53
	하반기	70.28	70.06	66.68	82.15
2015년	상반기	60.29	64.41	48.07	60.12
	하반기	47.54	59.38	45.50	52.44

주: 2015년 하반기는 1~11월까지의 월평균.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1. 13),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 검색일: 2016. 1. 13).

한편, 2015년 11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입은 약 16.8% 감소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원유 수입이 통계상으로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과金正은의 국산품 애용 강조가

9) 북한의 석탄 수출액 추이(각년도 1~11월 누적액): 12.6억달러(2013년), 10.3억달러(2014년), 9.7억달러(2015년)

10) 그동안 베트남산 무연탄이 많이 수출되던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등으로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먼저 대중 원유 수입 통계를 보면 2014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5년의 전반적인 수입감소세가 원유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도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를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면 2015년 북한의 대중수입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2014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확실해 보인다(약 16.8% 감소).

그렇다면 원유를 제외하고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냉랭한 북중 간 정치적 관계, 중국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 동북 3성 경기 부진으로 인한 교류 감소 등 외부적 요인을 꼽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국산품 애용 지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은 이미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수입활동을 ‘공식적으로’ 펼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인데, 이 역시도 작년 같은 기간 수입액보다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했다(-11.0%). 그 외 석유제품, 대두유, 전화기 등 많은 품목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수입감소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¹⁾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1~11월)		2015년(1~11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5407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140	9.3	125	-11.0
2	8704	화물자동차	97	-28.1	98	1.4
3	2710	석유제품	145	68.6	97	-32.9
4	1507	대두유	101	31.0	90	-10.4
5	8517	전화기	95	43.7	65	-31.5
북한의 전체 대중 수입 총계			3,162	-2.6	2,630	-16.8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1. 13).

¹¹⁾ 이 중 화물자동차의 수입만 소폭 늘어났는데, 이종규(2015)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 및 토목 사업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III. 2015년 남북교역 동향(1~11월)

2015년에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3년 잠정적으로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2014년에 정상화되면서 역대 최대 남북교역액(약 23.5억달러)을 달성했는데, 2015년 11월 현재 24.9억달러로 벌써 이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에서 반출(대북 수출)액은 12.2억달러, 반입(대북 수입)액은 12.7억달러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보면 2014년에는 1.9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2.2억달러를 기록한 셈이다. 임가공료 지급방식의 위탁가공 무역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주요 산업은 중화학공업, 경공업, IT 부문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주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2016년 들어서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신규 주문 기피, 파견 직원 신변보장에 대한 우려, 한국정부의 출입제한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¹²⁾

〈표 5〉 2015년 개성공단 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연 월	개성공단 반입	개성공단 반출	합계
2012년 월평균	89,426	74,007	163,433
2013년 월평균	51,221	43,127	94,348
2014년 월평균	99,361	93,674	193,034
2015년 월평균(1~11월)	118,977	102,629	218,678
2015년 1월	117,966	114,333	232,298
2월	104,582	92,463	197,045
3월	134,347	105,764	240,111
4월	113,812	97,615	211,427
5월	115,091	97,419	212,510
6월	111,498	101,560	213,058
7월	119,028	106,742	225,770
8월	111,136	89,384	200,520
9월	123,835	95,123	218,958
10월	130,776	106,784	237,560
11월	126,674	121,735	248,409
2015년 소계	1,308,745	1,128,922	2,437,666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5년, 각호.

12) 『연합뉴스』, 「개성공단 바이어들 신규 주문 기피에 입주업체들 비상」, 2016. 1. 29.

IV. 평가 및 전망

2015년을 시작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외적 측면에 있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본 바 있다. 첫째는 북중무역의 감소 추세 지속 여부, 둘째는 지하자원 수출의 부진 여부, 셋째는 비상품거래를 통한 외화 획득 채널의 확보 여부였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북중무역은 확실하게 감소했다(-14.8%). 2000~14년 동안 연평균 22.4% 증가하던 북중무역은 2009년과 2014년에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데이터 보정 작업을 거칠 경우 2009년에는 감소폭이 훨씬 줄어들며, 2014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2000년대 이후 북중무역이 두 자리 수 이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유를 제외한 상태에서도 수입(-16.8%)의 감소폭은 수출(-12.3%)보다도 컸다. 냉랭해진 북중 간 정치적 관계, 중국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 동북 3성 경기부진 등 외부적 요인을 꼽을 수도 있겠으나, 신년사에 나타난 김정은의 국산품 애용 강조와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수입병’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¹³⁾

둘째, 2015년에도 지하자원의 수출부진은 지속되었다. 석탄(-6.3%)의 경우 단가하락에 대응하여 수출지역과 수요처를 전환하면서까지 물량을 늘려 봤으나 이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도 석탄의 경우는 가격만 반등한다면 수출액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라도 있다. 하지만 철광석(-68.5%)의 경우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가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인 수요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가격과 수요가 반등할 요인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이 북한 대중 수출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65.8%에 이를 정도로 대중수출 감소를 이끌었다.

셋째,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에 대응하는 다른 채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득수지(노동력 송출)와 서비스수지(관광수입)뿐 아니라 시장(내부의 비공식경제)을 통한 자금 흡수에 자신감이 커진 모습이다. 일례로 2015년 김정은은 대외무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입을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집권 초기 대외무역의 다각화, 수출상품의 다양화 등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기조이다.

1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생필품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물가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듯이 물자 생산 능력이 향상되어 이를 대체했을 수도 있으나, 수입을 줄여야 하는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밀무역 등을 통한 상품공급이 활발해짐으로써 비공식채널의 비중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15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원유 수입에 대한 통계가 올해 반영된다면 마치 북중무역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란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북중무역이 증가세인지 아니면 감소세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4년(수출)과 2015년(수출과 수입)에 나타난 방향성은 감소세인데,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외화와 물품 공급에 있어서 다른 대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석(2016, p.4)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중국 수입을 ‘일방적으로(one-way) 그랜저 초래’하는 것으로 나오며, 특히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대중국 수입을 ‘일방적으로 그랜저 초래’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북한이 대중 무연탄 수출을 통해 경화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 수입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최근 지하자원 수출 감소는 지난 몇 년간 고착화된 북한의 기본 경제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통계로 잡히는 방향성뿐 아니라 주요 외화별이 채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형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¹⁴⁾

셋째, 무엇보다도 올해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각국의 양자 경제제재와 UN을 통한 다자 경제제재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안(H. R. 757)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2016년 1월 12일 기준), 상원까지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무기, 사치품, 마약, 돈세탁, 위조품 제작을 지원하는 모든 경제주체들(국가,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003, 2006년),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법(2004년), 한국의 5·24 조치(2010년)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¹⁵⁾ 다자 제재의 경우 현재 UN 안보리결의가 추진되고 있으나, 중국의 정치·경제적 입장으로 인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까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가 바오치(7%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기의 위축은 중국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UN 안보리결의에서 제재의 강도를 한 단계 정도 올리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 이석 편(2013)에 의하면 UN의 제재는 북한의 대중 수출보다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효과는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재 이후 1~2분기

14) 물론 김석진(2015, pp.47~48)은 “외화별이 부진해졌다고 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화 수입은 앞으로도 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감소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대외환경 및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외화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15)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경제제재에서는 이미 ‘당사국 효과’와 ‘제3국(중국) 효과’가 발생한 바 있으며, 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카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안만 효과).¹⁶⁾ 어쨌든 UN을 통한 제재가 일단 시행되면 북중무역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의 북중무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¹⁷⁾

16) 그동안 UN의 제재가 시행될 때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관 통관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수출보다 접경지역의 육로를 주로 이용하는 수입이 더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17)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결의 2094호가 채택되었지만 이때도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받고 북중무역액 자체는 최고치를 달성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김석진, 「북한 외화별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 남진욱,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5, pp.63~74.
- 『Daily NK』, 「김정은 수산물 수출 금지 명령...“군인들 먹여라”」, 2015. 10. 28.
- 『연합뉴스』, 「개성공단 바이어들 신규주문 기피에 입주업체들 비상」, 2016. 1. 19.
- 이석,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KINU 통일나침반 16-01, 통일연구원, 2016.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종규, 「2014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pp.46~53.
- 이종규, 「북한의 대외무역: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1월호, pp.52~61.
- 『파이낸셜 뉴스』, 2015. 4. 15.
- 허진석, 「중국 쇼크로 철강원료 저가격 시대 초창기화 가능성」, 『POSRI 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5년, 각호.
-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데이터베이스 (2016. 1. 13 검색).
-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 통계데이터베이스 (2016. 1. 13 검색).
- 〈관련자료 목록〉
- 이종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KDI Focus(통권 제57호)』, 한국개발연구원, 2015.